

전북형 AI 직접 개발... 공직 혁신의 결실

윤성호 전북자치도 주무관

“도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헌신하고 결집해서 직원들이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답답한 한바탕이지만 그 말에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면의 밤을 새우고 휴일까지 반납하며 묵묵히 일해 온 한 공직자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전북특별자치도 AI 고도화 사업의 실질적인 설계자이자 개발자인 윤성호 주무관 그는 최근 전북도가 자체 구축한 인공지능(AI) 행정 지원 시스템 개발을 주도하며 수십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숨은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1980년 전주 출생인 윤 주무관은 영생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전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친 정보기술 전문가다.

2006년 입실환경 전산직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2010년 전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 16년여 정보화 업무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그가 이번에 개발한 전북형 AI 시스템은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와 개발에 착수해 약 1년여 만에 완성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AI 행정시스템 구축에 나선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 경북도 등 손에 꼽을 정도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외부 전문업체에 개발을 맡긴 것과 달리 전북도는 자체 인력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윤 주무관은 “다른 기관들은 많게는 130억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전북도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구매 없이 자



체 개발을 추진했다”며 “예산 절감은 물론 성능 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시스템의 핵심은 화려한 화면이 아니라 ‘뒤바 역활을 하는 모델의 성능’이라고 강조했다.

“최신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해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기관들은 보안 문제로 외부 정보 활용

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개발을 했지만 보안 문제로 다시 재개발에 들어가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전북도에서 직접 설계해서 만든 AI는 실제 행정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윤 주무관의 성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전북도 모바일 행정 포털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구축 비용을 절감했으며, 전북인재개발원 교육생 근태관리 시스템도 직접 구축했다. 또한 국제복합금융센터·데이터센터 유지 협의, 도내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ISP 사업 등 굵직한 디지털 행정혁신 사업에도 핵심 실무자로 참여했다.

이 같은 공로로 그는 예산 절감 성과급을 받게 됐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뜻밖이었다.

통상 절감액의 10%를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지만 윤 주무관은 이번 절감액 효과를 25억원으로 산정해 10%(인 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0.1%(인 250만원)만 신청해서 전북도의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

“전북도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보상보다 예산을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의 노력에 비하면 결코 큰 금액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보다 조직과 도민을 먼저 생각했다.

그의 결에서 함께한 가족들의 희생도 적지 않았다. 휴일과 퇴근 후 시간을 개발에 쏟아부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주무관은 “이제 시스템이 대부분 완성돼 유지·보수 단계에 들어갔다”며 “앞으로는 직원들이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구축한 AI 시스템은 현재 전북도 공무원과도 신하 기관 근무자 약 9,000명의 공무원이 활용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약 2만4,000여명의 도내 지방공무원 모두가 AI를 활용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 행정 AI 플랫폼으로 성장하게 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인터뷰 내내 윤 주무관은 자신의 공을 드러내거나 조직과 동료들의 노고를 먼저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모습은 분명 특별했다. 화려한 조명도 언론의 관심도 없이 오직 도민의 세금 한 톨이라도 아끼고 행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걸어온 길, 전북특별자치도가 디지털 행정 분야에서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배경에는 바로 행정정보과 윤성호 주무관과 같은 ‘보이지 않는 영웅’들의 헌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25억원의 예산보다 더 값진 것은 공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의 마음이 아닐까. 전북의 미래를 밝히는 진정한 참 공직자의 모습이었다.

/이만호 기자



순창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순창군은 지난 23일 순창군장애인체육관에서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순창군장애인연합회(회장 김종태)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순창군장애인후원회와 한국부인회, 대한적십자사 순창읍봉사회·강천봉사회 등 지역 기관·단체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장애인과 가족,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답답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모두가 차별 없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이어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표창 수여가 이뤄졌다. 순창군수상, 순창군의회장상, 순창교육지원청장상, 순창경찰서장상 등 총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그동안의 노력과 공로를 인정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부안수협,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

부안수협은 지난 23일 본점 주차장에서 임직원 및 조합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해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최근 혈액 수급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마련됐다.

부안수협은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를 지원받아 본점 주차장에서 사진 홍보와 참여자 모집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여성새일센터, 멘토 역량강화 특강

남원시 여성새일하키센터는 지난 23일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따뜻한 동행 토닥토닥 멘토링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멘토 역량강화 특강’을 실시했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한 멘토링은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진 선배 전문가(멘토)가 초기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취·창업 여성 및 구직자(멘티)에게 실질적인 업무 노하우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강은 ‘멘토의 경험을 언어로, 언어를 지지로’라는 주제로 △멘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코칭스킬 △멘티와의 신뢰관계 소통 방법 △실질적인 업무 노하우 전수 역량 강화 △실습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화법 등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18회 고창군농협기 게이트볼 대회 성료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와 관내 지역농협(고창농협, 해리농협, 선운산농협, 흥덕농협, 대성농협, 고창부안축협)이 공동 주관한 ‘제18회 고창군 농협기 게이트볼 대회’가 지난 23일 군 게이트볼전용구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관내 14개 팀, 1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치며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경기 결과 고창읍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모양이 준우승, 상하면과 공음면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대회는 농협이 주관하는 만큼 농심전심 가치 확산을 중심으로, 지역농협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교도소,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 직원 대상 교정현장 참관

전주교도소(소장 주정민)는 24일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렴과 준법의 가치 확산에 나섰다.

이번 참관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반부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수용동과 작업장, 직업훈련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교정행정의 역할과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했다.

참관에 참여한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 관계자는 “이번 견학을 통해 청렴과 준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교도관들이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정민 전주교도소장은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교도소는 지역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정행정을 실현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만호 기자

군산 옥도면 지사협, 생필품 꾸러미 지원 추진

군산시 옥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나가이 공공위원장 전재인)는 24일 섬지역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랑담은 생필품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리적 특성상 생활필수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섬지역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된 지역특화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50가구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총 500만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를 지원할 예정이다.

생필품 꾸러미는 세제, 치약·치솔, 삼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으로 구성되며, 대상 가구의 수요를 반영해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군산=김민호 기자

김제시 지원'희망남포 로컬유학 문학기행

김제시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희망남포 로컬유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0일 농촌유학 가족과 지역주민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학기행이 진행됐다.

드림부계터사회적협동조합이 추진한 이번 문학기행은 농촌유학 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문화와 문해, 생태를 체험하며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부안 석정문화관과 매창테마관을 방문해 전북을 대표하는 문인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살펴보고 문화해설을 들으며 문학적 소양을 높였다. 학생들은 사전에 신석정 시인의 작품을 읽고 시 낭송을 준비했으며, 문학퀴즈 활동에도 참여했다.

이어 곰소갯길시장 등을 둘러보며 지역의 문화와 생태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울상반기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회의

김제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2026년 상반기 요촌동 및 신흥동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총 17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해 각 마을별 상반기 치매안심마을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운영위원회 참석자들은 상반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치매 예방과 조기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신보 전북, 농협은행 여신담당자 대상 보증교육

농림수산식품진흥보증기금 전북지역보증센터(이하 농신보 전북센터)가 금융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보증지원 교육을 실시하며 농업인 금융지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농신보 전북센터는 지난 23일 관내 NH농협은행 여신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증지원 핵심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신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대한 금융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NH농협은행 영업점 여신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농신보 보증제도와 주요 지원사업, 보증 취급절차, 실무상 유의사항 등 금융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농업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증 활용 방안과 실제 지원 사례를 공유하며 금융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와 보증지원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상근 기자



전주상의, ESG 경영 인식개선 교육

전주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을 개최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3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 대표자와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ESG 경영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역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김재훈 ESG 전문 강사가 맡아 ESG 경영의 필요성과 국내외 동향, 기업의 대응 전략 등을 중심으로 실무형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과 강화되는 ES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평가 지표 관리 방법 등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교육에 참석한 기업 임직원들은 ESG 경영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오상근 기자